

■ 원로와의 대담

"농업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李春寧** 박사와 함께



◇ 우리 농업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대학강당에서 한평생을 바친 원로농학자 이춘녕박사

「한국 농업 技術史」 집필중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니 남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블러져서서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82년 8월에 서울대 농대를 정년퇴임한 후 12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동안 그냥 집에서 쉬지는 않았어요. 몇개 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담당, 젊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를 계속 했어요. 요새는 「한국농업

기술사」 집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요. 작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발간한 국사논총에 「한국고대 농업기술과 생산력연구」를, 작년 1월에 발행된 학술원 논문집에는 「개항, 개화기의 한국농학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으며 한성대 논문집 민족문화특집에 「한국농기구 발달소사」를 게재하였어요. 요새는 경희대 대학원(식품가공학과)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외모에서 풍기는 대쪽같은 선비의 기개, 한편으로 훈훈한 인간미가 넘치는

대담/朴澤奎

(건국대 이파대 학장/본지편집위원장)

자애로움,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근엄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하는 자상함으로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야말로 노소동락하시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후학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항상 겸손하신 것을 저도 언제나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 집안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史學者 이병도박사 2男

선친 이병도박사(작고, 전 서울대교수·학술원장) 슬하에 5남5녀의 형제가 있는데 누이동생이 작고하고 현재 9남매가 살아 있어요. 이기녕(서울대명예교수), 이태녕(서울대명예교수), 이동녕(포항공대교수), 이본녕(재미물리학자), 그리고 내가 2남으로 아들 5형제에 이어 딸 5자매가 있습니다.

나는 당시로서는 만혼인 28세에 결혼했는데 일본 유학중 공부 때문에 이렇게 늦어 내자(任玉淳여사)와는 내년에 금혼을 맞게 됩니다. 장남 長茂(49·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교수), 차남 健茂(47·광주 박물관장), 장녀 榮珠(36·사회과학도서관 사서과 근무)가 있어요. 딸 내외가



◇ UR협상 결과 쌀死守의 구호가 물거품이 되어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는 이춘병 박사(右)가 박택규 본지편집위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직장에 나가므로 주중에는 외손자 부찬용(3세)과 함께 생활하지요.

선생님은 순 서울태생으로 서울에서 초·중등교육을 받으시고 수원고농에 진학하셨는데 농학을 전공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서울 계동에서 태어나서 재동보통학교, 경기고보(30회) 그리고 수원고농 농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수원고농에 입학한 동기라야 별다른 게 없고 몸이 약해서 몸을 튼튼하게 한다는 게 동기라고 할 수 있을런지... 사실 수원고농에서는 학과수업 이외에 하루 5~6시간 실습을 했는데 이게 진짜 중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러한 실습을 견디노라니 체력이 단련된 셈이지요. 수원고농 졸업후 일본 규슈제대 농학부 농예화학과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조백현교수(규슈제대 농예화학과 1회, 전 서울농대교수)가 외삼촌이어서 이 어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1941년 졸업후 대학 농학부 섬유화학연구소에서 4년간 연구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유명한 합성섬유 나일론이 발명된 몇년후여서 일본에서도 합

성섬유 연구가 활발, 아디프산 대신에 다른 유기산으로 대체하는 연구를 했어요. 해방되기 4개월전에 귀국, 개성 소재 제약회사의 부사장이던 閔寬植박사(과총 명예회장)의 권유로 이 회사 실험실에 입사했습니다.

46년에 서울농대 교수로

해방후 본격적으로 대학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까.

개성에서 근무한지 4개월만에 해방이 되자 서울로 와서 서울의학전문학교에서 조교수로 1년간 봉직했는데 이때 일반화학 과 유기화학을 강의했고 46년 가을에 모교인 서울농대로 금의환향, 1년반쯤 교수로 근무하다 하와이교포 초청으로 하와이대 농학부에 유학갔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농업기계학, 토양화학, 생화학 등의 강의를 수강했지요. 그런데 최근 졸업생들의 후원으로 92년 1월에 아내와 함께 하와이여행을 했습니다. 꼭 45년만의 하와이 방문이어서 졸업생들에 대한 고마움과 개인적인 감회가 매우 컸어요. 45년전 그 당시 하와이 교포의 생

활상, 풍물사진 그리고 메모 등을 모아 두었는데 이것을 자료로 「하와이 유학 회고」라는 자그마한 책을 출간해서 제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나누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美 유학때 논문8편 발표

옛날과 지금의 하와이를 비교하는 자료로서도 매우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당시 유학은 생활비 확보, 서울 가족들의 생활걱정 등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와이로 떠날 때 장남이 3세, 차남은 백일이었어요. 가족들은 6.25 동안 때는 서울에 있다가 1.4후퇴 때 인천에서 배로 부산에 가서 피난살이를 했으니 아내의 눈물겨운 고생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겠지요. 6.25동안 때는 워싱턴DC에서 대학의 조교 1년, 메릴랜드 대학원 1년후 50년에 조지타운대에 들어갔는데 이때 불경기여서 한달에 1백달러 주는 조교자리를 겨우 얻어서 생활했습니다. 1950년부터 4년간 조지타운대 대학원 화학과에서 생화학을 전공하면서 이 대학 의과대 생화학교실에서 연구했어요. 「시스틴의 정량법연구」로 학위를 받았고 특히 인간 치아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에 관한 논문도 8편을 발표했어요. 학위를 받은 후 NIH에서 Visiting Scientist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연구를 계속하다가 54년에 귀국했습니다. 그 때가 서울 환도 1년후가 되는데 바로 서울대 농대 농화학과로 복직해 김호식교수(학과장), 이성환(유기화학), 맹도원(토양비료), 그리고 심상철(물리화학)교수 등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79년으로 기억되는데 선생님이 서울농대

학장시절에 「기초생화학」을 공동집필하였지요. 제 은사이신 李鍾珍교수(작고, 전 서울대학교수)의 회갑기념으로 집필하였는데 그 이듬해 정월에 작고하셔서 유고를 포함해 출판하여 1주기때 성모가서 「기초생화학」 책을 봉정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종진교수와는 해방후 수원고농에 함께 재직한 인연으로 가깝게 지냈어요. 광림사(光林社)에서 출판한 이 책은 생화학교과서로서 박학장을 포함하여 朱忠魯교수(연세대 생화학과), 白台鴻교수(작고, 전 한양대 화학과교수) 등 5명의 공저였지요. 5명의 공저를 연령순으로 이춘녕, 이종진, 주충노, 백태홍, 박택규로 명기했던 기억이 새롭고 또한 책 머릿말에 『이종진박사가 우리나라 생화학계에 남긴 연구업적과 공적을 기리면서 이 신저(新著)를 선생의 영전에 바친다』는 글귀가 회상되는군요.

선생님은 유기화학, 생화학의 교과서 집필 이외에 농업기술, 농화학분야에서 많은 연구 업적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8년전에 향문사(鄕文社)에서 한국전통 고유향신료, 천연식품 색소의 역사와 화학성분, 이용상태 등을 총망라한 저서를 출간했고 몇년전에 향신료와 천연색소에 관한 연구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유문화사의 농업문고로 「조선농업기술 소사」가 출간된 것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돌아온 후 62년에 「이조농업기술사」를 발간했어요. 3년전에 일본 교토대 이이누마(飯沼)명예교수가 일본의 미래사(未來社) 출판사에서 일본어로 번역 출판했는데 초판이 1년만에 매진, 재판이 나왔어요. 이것을 완전 개정해서 91년에 「한국농학사」를 발간했는데 한국의 농학을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로 압축하

여 조명하였지요. 고대에는 농학이 성립되지 않았고 농업기술만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고대농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시기는 세종대왕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고대농학의 시작을 비롯하여 구한말까지 농업의 내용을 소개, 해석하고 농업에 대한 사상을 유학 사상과 결부시켜 다루었고 구한말 때의 신농학의 유입경로, 그리고 일본지배하에서 일본식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살폈지요. 특히 일제 때, 해방후, 현재의 농학을 압축해서 다루었으며 조선시대의 농서를 주대상으로 연구하여 한국의 농업을 통사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쌀死守 무너지 착잡할 뿐

한국 농학계의 원로로서 농업의 현주소, 쌀의 문화적 의미 등을 강조하는 글들을 많이 발표하셨고 작년에는 「쌀과 문화」라는 저서를 발간하셨지요.

작년 1월에 서울대 출판부에서 「쌀과 문화」라는 도서를 출간했어요. 쌀의 역사를 풀어 쓴 내용인데 벼 재배의 기원, 쌀의 이용을 식품화학적 측면과 민속적인 측면에서 다루었고 쌀의 생산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에서 민속학적인 것 등을 소개하였지요. UR협상 결과 쌀의 부분적인 수입개방이 기정사실화 된 이 마당에 국제화·개방화는 피할 수 없지만 쌀사수의 구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고 착잡한 마음입니다. 일본은 10년전부터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비, 연구를 계속하였는데 우리도 이러한 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해요.

농업의 과학화를 위한 기반조성, 집단농업방식의 확산, 재배방법개선을 비롯 농학연구에 대한 투자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기업농 양성, 전업농 보상 등의 대

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농업은 식량 확보의 차원뿐 아니라 홍수방지, 기온 대비 등 수질 보존의 차원에서도 절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양분을 축적하고 공기를 정화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보존, 전통문화보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신문화의 토양을 가꾸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농업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수교수 유치 앞서야

선생님께서 서울대를 비롯 여러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셨는데 선생님의 전공과 관련 학문적으로 가장 밀접한 제자 몇분을 소개해주시고 아울러 과학기술계에 당부하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변시명(한국과학기술원교수), 김수일(서울대농대교수), 김성곤(단국대교수), 조소현(아주대교수)을 들 수 있겠지요. 수많은 제자들과 학문적·인간적으로 유대를 맺고 있으므로 그 수효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껏 겸손을 생의 신조로 삼으면서 살아왔어요.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확충돼야 하고 대학에서의 우수교수충원이 절대 필요하며 특히 국내의 우수교수 유치에 진력해야 합니다. 평생을 대학강단에서 농학을 강의하고 연구한 입장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강조하면서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선생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곳곳한 자세로 살아오신 선생님의 다정한 음성을 많은 제자들이 기억할 것이며 또한 선생님의 고매한 인격과 학자로서의 품위, 학문적인 업적에 항상 머리숙이면서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